

LOGISIGHT

WEEKLY INTELLIGENCE

WEEKLY REGIONAL ANALYSIS · FAR EAST · CIS

극동·CIS 물류 현황 분석

보고기간 08/31~09/06

1. 중간회랑 핵심 인프라 변화와 카자흐스탄 물류 역량 강화
2. 러시아 에너지 수출 차질 및 제재 회피 선박 단속 강화

LOGISIGHT 인텔리전스팀

2026-W36

종합

이번 주 극동 권역은 중간회랑의 인프라 병목 해소와 러시아 에너지 물류 리스크 고조라는 대조적 흐름이 두드러짐. 바쿠-트빌리시-카르스 철도의 조지아 구간 현대화 완료로 연간 용량이 100만 톤에서 500만 톤으로 확대되어 카자흐스탄을 경유하는 중간회랑의 물동량 증가가 기대됨.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 공격과 EU의 제재 회피 선박 단속 강화로 에너지 수출 차질과 해운 리스크가 동시에 고조됨.

중간회랑의 용량 확대는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화물 운송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여, 러시아를 우회하는 대안 물류 네트워크로서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이는 카자흐스탄의 물류 허브 지위 강화로 이어지고, 역내 무역 다변화를 촉진할 수 있음. 동시에 러시아 에너지 수출의 차질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특히 유럽의 에너지 수급과 해상 운송 보험료 상승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중장기적으로 유라시아 물류와 에너지 지형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며, 이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경제적 관계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중간회랑 핵심 인프라 변화와 카자흐스탄 물류 역량 강화

바쿠-트빌리시-카르스(BTK) 철도의 조지아 구간 현대화 완료로 연간 용량이 100만 톤에서 500만 톤으로 확대되며, 카자흐스탄을 경유하는 중간회랑의 병목이 해소되고 환적 물동량 증가가 기대됨.

BTK 철도는 2017년 개통 이후 중간회랑의 핵심 축으로 기능해 왔으나, 조지아 구간의 연간 처리 능력이 100만 톤에 불과해 증가하는 컨테이너 화물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병목으로 지적되어 왔음. 2023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진행된 현대화 공사에서 조지아 내 184km 구간에 대해 13개 역사, 55개 교량, 8개 견인 변전소 등이 정비되고 30.3km의 신규 선로와 윤축 교환 시설이 신설됨. 이로써 BTK 철도의 연간 화물 처리 능력은 기존 대비 5배인 500만 톤으로 증가함.

카자흐스탄 정부는 BTK 철도의 용량 확대가 자국의 환적 잠재력 강화와 국제 화물 운송량 증대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함. 카자흐스탄은 BTK 철도를 통해 카스피해를 건너 아제르바이잔·조지아·튀르키예를 경유하는 유럽행 화물의 육상 구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번 개통으로 카자흐스탄 화물의 유럽 시장 진출 경로가 추가로 다변화됨.

카자흐스탄 철도(KTZ)의 자체 인프라 확충도 병행되고 있음. KIZ는 3,000km 규모의 철도망 현대화 사업 중 1,781km(약 60%)를 완료했으며, 최근 칸디아가시-토볼 구간의 신호·제어 시스템을 디지털화하여 선로 용량과 신뢰성을 높였음. 이는 BTK 철도와 연계되는 카자흐스탄 국내 구간의 처리 능력을 제고하여 중간회랑 전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임.

실제로 카자흐스탄 철도 화물 운송량은 2026년 1~7월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1억8,440만 톤을 기록함. 수출 화물은 6.5% 증가한 5,340만 톤으로 국내 운송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특히 곡물 수출은 10.4% 증가하며 회복세를 이끌었음. 이러한 화물량 증가는 러시아 우회 노선 수요 확대와 맞물려 카자흐스탄을 경유하는 유라시아 물동량 흐름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 BTK 철도 조지아 구간 현대화 완료로 연간 화물 처리 능력이 100만 톤에서 500만 톤으로 5배 확대됨 (2024년 6월 2일 재개통).
- 현대화 공사에 13개 철도역, 55개 교량, 8개 견인 변전소 정비, 30.3km 신규 선로 부설, 윤축 교환 시설 신설이 포함됨.
- 카자흐스탄 철도(KTZ)는 3,000km 현대화 계획 중 1,781km를 완료했으며, 칸디아가시-토볼 구간의 디지털 신호 시스템 도입으로 선로 용량을 개선함.
- KIZ의 2026년 1~7월 화물 운송량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1억8,440만 톤, 수출 화물은 6.5% 증가한 5,340만 톤을 기록함.
- 같은 기간 곡물 수출 운송량은 10.4% 증가한 630만 톤, 철광석 운송량은 16.6% 증가한 1,380만 톤으로 나타나 중간회랑 화물 증가에 기여함.

전망

BTK 철도의 용량 확대와 카자흐스탄 국내 철도망의 현대화는 중간회랑의 처리 능력과 신뢰성을 동시에 제고할 것으로 전망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를 우회하는 화물 수요가 지속될 경우, 카자흐스탄을 경유하는 환적 물동량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 다만 카스피해 횡단 선박 구간의 수용 능력과 카자흐스탄 항만의 처리 효율이 향후 성장 속도를 좌우할 변수로 작용할 것임.

시사점

화주 — 중간회랑 이용 시 과거 병목이던 BTK 철도 구간의 처리 지연이 완화되어 리드타임 단축 및 물류 안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임.

포워더 — 러시아 우회 노선에 대한 대안으로 카자흐스탄 경유 유럽행 복합운송 상품의 경쟁력이 높아져 신규 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임.

항만·선사 — BTK 철도 처리 능력 확대로 카스피해 횡단 구간의 물동량이 증가할 것이므로, 악타우·쿠리크 항의 선석 및 크레인 등 하역 인프라 확충이 긴요함.

참고자료: Transport Corridors (railmarket.com), 바쿠-트빌리시-카르스 철도 재개통...조지아 구간 용량 5배 증가 · Transport Corridors (gov.kz), 바쿠-트빌리시-카르스 철도 개통...카자흐 환적 물동량 증가 전망 · Transport Corridors (rail-news.kz), 카자흐 철도 7개월 화물 184.4백만톤...전년 대비 3.2% 늘어 · Transport Corridors (KTZ), 카자흐 철도 화물량 3.2% 증가...곡물 수출 10%↑ · Transport Corridors (rail-news.kz), 카자흐 철도 현대화 60% 완료...칸디아가시 구간 개통 (검색일: 2026-09-06)

러시아 에너지 수출 차질 및 제재 회피 선박 단속 강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 공격과 EU의 제재 회피 선박 단속 강화가 맞물려 러시아발 에너지 물류의 차질과 해운 리스크가 동시에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 발트해 최대 원유 수출항인 우스티루가항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레닌그라드주 당국은 방공망이 52대의 드론을 요격했으며 항만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인명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우스티루가항은 하루 70만 배럴의 원유를 처리하고 지난해 3,280만 톤 이상의 정제유를 수출한 핵심 거점으로, 지난해 8월에도 유사한 피격이 있었던 만큼 러시아 에너지 수출 인프라에 대한 공격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공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에 따른 전쟁 양상의 일부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에너지 수익원을 차단하기 위해 항만·정유시설을 집중 타격하는 전략에서 비롯된다. 이에 따라 러시아 에너지 수출의 물리적 기반이 반복적으로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우스티루가항과 같은 서부 항만의 운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화재 진화가 신속히 이루어져 당장의 물동량 차질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공격 빈도 증가는 항만 인프라의 탄력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동시에 EU는 지중해에서 러시아 그림자 함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EU 해군 작전부대는 지난 16일 러시아 연계 유조선 MV SUN호에 승선해 국기 검증을 실시했으며, 이는 최근 수개월간 여섯 번째 승선 검증 사례라고 밝혔다. EU는 이미 약 600척의 그림자 함대 선박을 제재 명단에 올렸고, 지난해 7월에는 제재 회피 원유를 몰수·매각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도입했다. 이는 서방의 가격상한제 우회를 막으려는 조치로, 러시아 해운 네트워크에 대한 압박이 지중해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이중고는 러시아발 에너지 공급망 전반에 리스크를 전이시키고 있다. 우스티루가항 피격으로 흑해·발트해 항로의 보험료 상승과 선박 운항 일정 조정 등 부수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중해 단속 강화는 러시아산 원유의 제3국 환적에 추가 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EU의 나포 움직임에 대해 보복을 경고한 상태여서 해상에서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러시아 에너지 수출 물류는 전쟁 리스크와 제재 리스크에 동시에 노출되어 공급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 우스티루가항은 하루 70만 배럴 원유 처리, 2025년 정제유 수출 3,280만 톤 이상 기록
- 레닌그라드주 당국, 이번 공습에서 드론 52대 요격, 항만 화재는 약 4시간 만에 진화
- EUNAVFOR MED IRINI, 2026년 8월 16일 그림자 함대 의심 선박 MV SUN호에 승선 검증 (최근 6번째)
- EU, 러시아 그림자 함대 연루 의심 선박 약 600척을 제재 명단에 등재
- 푸틴 대통령, 러시아 상선 나포 시 동일한 방식의 보복 경고

전망

러시아 에너지 수출 인프라에 대한 공격과 제재 단속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러시아발 에너지 물동량의 불확실성을 높일 전망이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타격 정밀도가 향상되고 EU의 해상 단속 범위가 확대되면서 러시아의 수출 경로는 더욱 제약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에너지 해운 시장에서 러시아산 물량의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대체 공급원으로서의 수요 전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시사점

화주 — 러시아발 에너지 화물의 공급 안정성 저하로 인해 대체 공급원 확보 및 운송 계약 조건 재검토가 필요하다.

포워드 — 흑해·발트해 항로의 보험료 인상과 운항 일정 변동에 대비해 유연한 스케줄링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항만·선사 — 제재 회피 선박에 대한 단속 강화로 선박 검사 및 서류 검증 절차 강화가 요구되며,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참고자료: The Moscow Times, 러시아 우스티루가항 드론 피격 화재...원유 수출 허브 타격 · The Moscow Times, 유럽 해군, 지중해서 러시아 '그림자 함대' 유조선 승선 검증 (검색일: 2026-09-06)